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윤형준 전문연구원
2. 출장기간: 2023.07.31-2023.08.15(14박 16일)
3. 출 장 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및 근교
4. 출장목적: 동북아시아경제포럼(NEAEF) 연례포럼 참석 및 Emerging Leaders Program(ELP)* 프로그램 참석

* 올해부터 기존 프로그램명 Young Leaders Program(YLP)이 Emerging Leaders Program(ELP)으로 변경됨

II. 출장일정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7월 30일	인천 → 호놀룰루	· 이동(인천→호놀룰루)	KE053
8월 1일 ~ 8월 2일	호놀룰루	· NEAEF 연례 포럼 1일차 참석 · NEAEF 연례 포럼 2일차 참석	
8월 3일 ~ 8월 12일	호놀룰루 및 근교	· ELP 프로그램 참석	
8월 8일	호놀룰루	· 하와이 재생관광 (Regenerative Tourism) 컨퍼런스 참석	
8월 14일 8월 15일	호놀룰루 → 인천	· 이동(호놀룰루→인천), 8월 15일 도착	KE054

Ⅲ. 활동내용(요약)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NEAEF 연례포럼 참석	(8월 1일) · 개회사 · 세션 1 & 2 : 에너지 정책 (1일차) · 세션 3 : 에너지 혁신 (8월 2일) · 세션 1 : 무역 및 디지털 경제 · 북한 문제에 관한 특별 세션 · 세션 3 : 스마트 시티 · 세션 4 : AI · 폐회사 (8월 8일) · 재생관광(Regenerative Tourism) 컨퍼런스 참석	100%	
ELP 프로그램 참가	(8월 3일) · 북한 관련 Glyn Ford 전 유럽의회 의원 면담 (8월 3일) · 리더십 관련 Neolani Kalipi, Kalipi Group 대표 발표 (8월 4일) · AI 기술과 정책관련 Bhikha Ramakrishnan 및 Rita Singh 카네기 멜론 교수 발표 · 하와이 경제 관련 Roy Takumi 전 의원 발표 · 디지털 경제 세미나 참석 -발표자: Ian Kitajima, Pacific International Center for High Technology Research 대표, Bart Beavers, NEC그룹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Kamuela Enos, 하와이대학 토착 혁신(indigenous innovation) Director (8월 5일) · 비숍 박물관 견학 (8월 7일) · American Savings Bank(ASB) 방문	100%	

	및 Beth Whitehaed 부사장 면담 · 스마트 시티 세미나 참석 - 발표자: 이상엽 하와이대 교수, Stanley Chang 하와이 상원의원, Yuji Soda First Insurance Company Assistant Vice President (8월 9일) · 하와이 재생관광 현장견학 (Hanauma Bay 주립공원, Diamond State 주립공원) (8월 10일) · AES Hawaii(하와이 친환경 전력공급업자) 현장 견학 · 에너지 분야 세미나 참석 - 발표자 : Yoh Kawanami, 하와이 전력 director, Nori Tarui, 하와이 대학교수, Maria Tome 하와이 전력 director (8월 11일) · ELP 그룹별 발표자료 작성 (8월 12일) · ELP 그룹별 발표		
--	--	--	--

IV. 관찰 및 평가

□ NEAEF는 호스트 국가 및 도시의 주된 정책 관심사를 파악하고, 관련 정부, 민간, 학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

- 코로나19 이후 하와이 경제는 에너지 전환, ICT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노숙자, 부동산 문제 등) 해결, 관광산업의 건강한 복원 등이 주된 화두
- 또한 이번 NEAEF에서는 팔라우가 특별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향후 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한편 NEAEF의 창립자인 조이제 박사 사후 복한 이슈는 관심이 매우 떨어진 상태로, 특별 세션 1회로 명맥만 유지

- NEAEF는 미·중 패권경쟁과 러·우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모든 국가 참여자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의의
 - 친환경 전환, 디지털 경제의 포용적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포럼의 정치적인 성격은 덜하였음.
 - 패널로 참석한 홍재형 전 장관은 제3차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였으나, 대부분 참석자는 직접적인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NEAEF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있어 지원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워싱턴의 기류 변화에 대한 언급

-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키노트 연설을 한 팔라우 대통령은 ‘과학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특징
 - 팔라우는 2차세계대전 중 일본의 점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본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관련, ODA 측면에서 일본의 미크로네시아 및 폴리네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됨.

- ELP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의 젊은 연구자, 정부 관계자 및 학자가 참여하고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 올해 ELP 프로그램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몽골, 팔라우, 과테말라, 러시아에서 총 14명이 참여 (참석자 명단 별첨)
 - 주요 활동 분야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KIEP, 일본에너지연구원), 국제기구 근무자(World Bank), 공무원(팔라우 대통령실), 시민운동가, 박사과정생 등 다양

- NAEAF는 KIEP과의 교류 재활성화를 희망
 - NAEAF 창립자인 조이제 교수의 사망과 코로나19 이후 KIEP과의 지원과 교류가 상당 부분 중단된 상황
 - KIEP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NEAEF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ELP 프로그램에 연구원급 1명을 파견 중

V. 상세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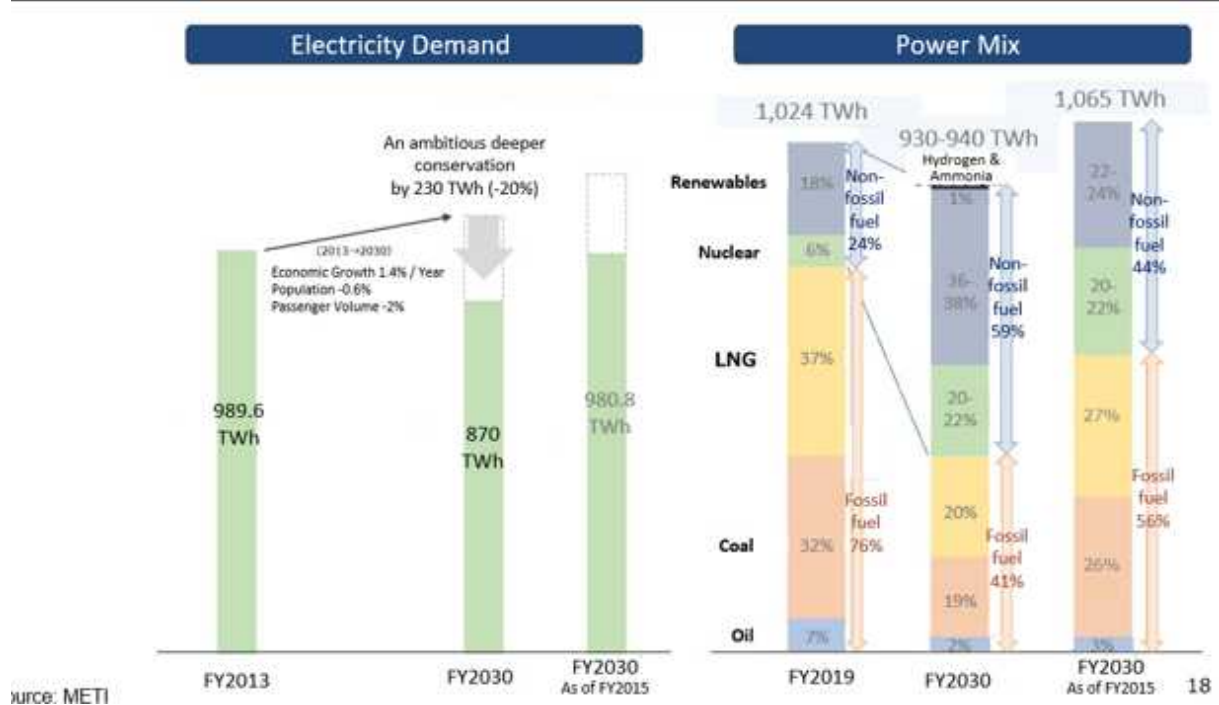
1. 세션별 논의사항

1) NAEAF 1일차

□ [세션1] 에너지 정책 세션1

- (Kaleb Udui) 팔라우의 에너지 의존 현황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 및 국제사회의 지원 내용을 소개
 - 팔라우는 주거용, 상업용, 관공서용 태양광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의존도 100% 달성을 목표
 - 현재 전력의 93%가 화석 연료로 생산되고 있으며, 7%만이 재생 에너지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
 - 특히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과 섬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 에너지 비용이 30% 증가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보다 중요해짐을 강조
 - 특히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의 팔라우 그리드 업그레이드 사업을 소개하며 팔라우-일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 (Yasuo Tanabe) 일본의 넷제로 2050 정책 소개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을 공유
 - 일본은 2030년까지 46%의 배출 감소와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전기와 전기 부문에 모두 배출 감소를 추진 (그림 1 참조).

그림 1. 일본의 에너지 정책 목표



- 특히 철강, 화학, 항공, 해상 운송, 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감축하기 어려운 부문에서는 탄소 제거 기술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녹색성장 전략은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의 3개 그룹의 14개 세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래 그림2 참고)
- 이 전략에는 에너지 안보(자급률 약 30% 달성), 경제적 효율, 환경(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감축)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 에너지 정책 주요 목표
 - ① 2050년 탄소중립(2020): 2020년 공식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강조
 - ② 녹색성장전략 2020: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된 14개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녹색성장전략 실행

그림 2 일본의 녹색성장 전략 14개 부문

Energy	Transport/Manufacturing	Home/ Office
Offshore wind power Wind turbines, parts, floating wind turbines	Mobility and battery EV (electric vehicle), FCV (fuel cell vehicle), next generation batteries	Housing and building, Next generation PV (perovskite solar cell)
Ammonia fuel Combustion burner (as fuel in transition period to hydrogen-powered society)	Semiconductor and ICT Data centers, energy-saving semiconductors (demand-side efficiency)	Lifestyle-related industry Local decarbonization business
Hydrogen Turbines for power generation, hydrogen reduction steel-making, carrier ships, water electrolyzers	Maritime Fuel-cell ships, electric propulsion ships, gas-fueled ships	Resource circulation Biomaterials, recycled materials, waste power generation
Nuclear power SMR (Small Modular Reactor), nuclear power for hydrogen production	Logistics, people flow and infrastructure Smart transportation, drones for logistics, fuel-cell construction machinery	
	Food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mart-agriculture, wooden skyscrapers, blue carbon	
	Aviation Hybrid electric, Hydrogen-powered, Aircraft	
	Carbon Recycling Concrete, biofuel, plastic materials	

Source: METI

6

- ③ 2030년까지 탄소배출 46% 감축(2021년 4월) : 2030년까지 배출량을 46% 감축하는 일본의 노력을 강조
- ④ 2021년 전략에너지계획(2021년 10월) : 일본의 2030년 에너지믹스 계획을 개괄한 2021년 전략에너지계획(Strategic Energy Plan 2021)을 소개하고 안전, 에너지안보, 경제효율, 환경(E+3S) 원칙에 따라 비화석연료 59%, 화석연료 41% 달성을 추진
- ⑤ GX 실현을 위한 기본정책(2023) : 친성장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 실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소개하였고, 배출권 거래, 허용 경매, 화석연료 공급에 대한 GX-Surcharge 도입 등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당면 과제 및 기회:

- ① 재생에너지 : 해상풍력산업 비전(Phase 1)을 소개
- ② 원자력 :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통찰, 원자력 발전소 현황 및 검토 과정, 재가동 및 폐로에 대한 논의 소개
- ③ 수소·암모니아 : 일본의 수소기본전략 개정에 따라 205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공급 증가 및 비용 대폭 절감 목표를 강조하면서, 전기분해 장치 용량 증가 계획에 대해서 언급

○ 국제협력의 중요성

- ① G7: 2023 히로시마 G7 정상 공동성명과 일본의 기후 공동행동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면서 국제 협력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강조
- ② 아시아 배출가스 제로 공동체(AZEC) :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공동체인 AZEC를 소개하고, 창립 각료회의 개최 및 공동체의 목표를 강조
- ③ JUCEP 의장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경쟁력, 회복력, 탈탄소, 청정에너지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강조하는 핵심 파트너십인 JUCEP의 설립을 강조

- (Mark Glick) 하와이의 넷제로 2045 정책 목표 달성 현황과 도전 과제 공유

- 하와이 에너지 소비의 약 4/5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특성으로 본토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비싼 전기 사용료를 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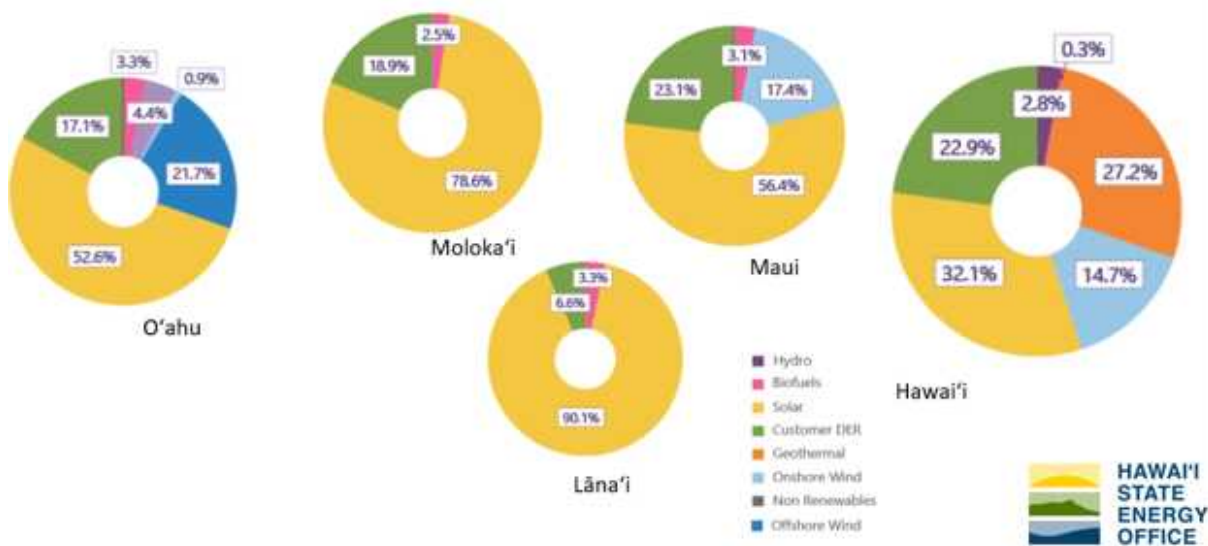
□ [세션2] 에너지 정책 세션2

- (Scott Seu) 하와이의 친환경 에너지 도입 현황 및 자가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과 도전과제를 공유

- 하와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배경은 △가격 변동성 및 반복적인 오일 쇼크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자급자족 의식 증대와 주민 지지 △URA 및 IIJA를 통한 연방 지원 등이 있음
- 하와이 에너지 가격은 미국 본토 가격을 따르지 않으며 수년간 (2000-2020년) 킬로와트시당 10-15센트가 유지됨
- 전력원은 주로 미국 본토가 아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전력가격은 본토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현실

- 특히 2021년 기준 에너지원의 64%는 리비아, 28%는 러시아, 8%는 아르헨티나로부터 공급받았으며, 2022년에는 대부분 리비아로부터 공급
- 하와이의 전력시장은 섬마다 다양한 전력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는 2045년까지 전력망을 통합할 계획이며, 대부분의 전력은 태양 에너지에로부터 공급받을 계획 (아래 그림 3 참고)
- 위와 같은 변동성 에너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정부는 IRA, 기타 연방 기금(에너지 및 청정 교통에 4,500억 달러 투자)을 활용 등을 추진

그림 3 하와이의 2045 전력 수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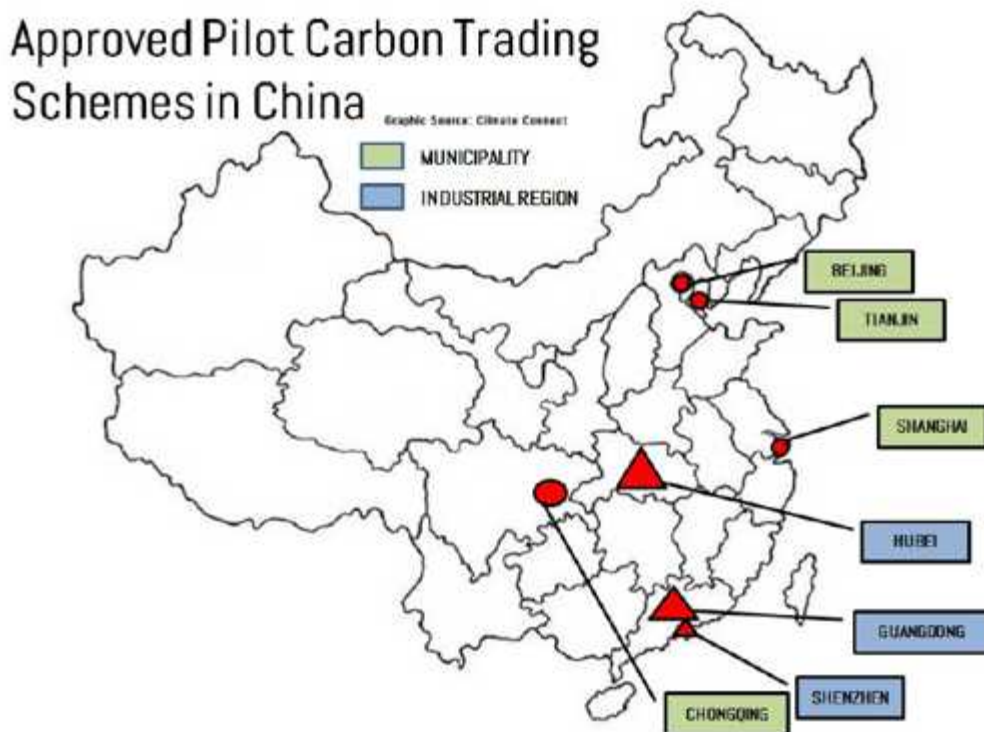
- (Zhongxiang Zhang)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 달성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

- 중국의 탄소거래 제도는 2014년까지 7개의 탄소거래 시범 거래를 시작하여 20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 (아래 그림 4 참고)
-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Peaking)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주요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장 세분화 돌파, 기존 국가 및 성급 산업단지의 제로탄소 기술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
- 또한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신에너지차, 충전소 확충 등)을 확대할 필요
- 다만, 중국 내 기존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지난 15년 이내에 건설되어 조기 퇴역은 어려움을 설명

그림 4 중국의 탄소 거래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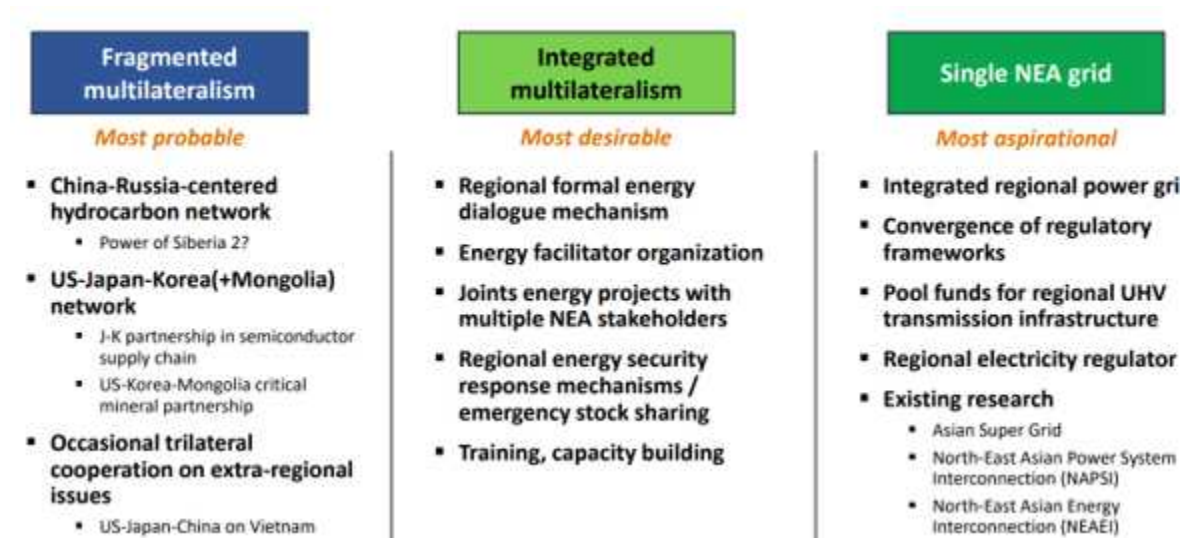


□ [세션3] 에너지 혁신과 투자

- (Battulga Odgerel)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와 중-러 에너지 협력 관계 전망 발표

- 한국, 중국, 일본은 에너지 안보(security), 형평성(equ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트릴레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

그림 5 동북아 에너지 협력 시나리오



- 동북아에서 가능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대화를 위한 플랫폼 또는 메커니즘, 지역별 독립, 정부간 기구(IEA와 유사),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언급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에너지 안보 대응 메커니즘, 지역 내 저탄소 에너지 무역 증가, 인프라 연결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
- 시진핑 정권은 현재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가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 공급을 늘리지는 않을 전망
- (Jin Lee) AI 기반의 혁신적인 Microgrid EMS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
- (이재협)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에 관하여 발표
- 동북아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주요 배출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기후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

- 해당 지역은 에너지 부존과 희소성이 결합되어 에너지 협력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역내 에너지 협력은 지정학적 긴장, 규제 차이, 인프라 및 기술 격차, 시장 경쟁 등 여러 과제에 직면
- 동북아 슈퍼그리드 계획안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아태 지역 지역번영을 위한 기반임을 강조(아래 그림 6 참고)

그림 6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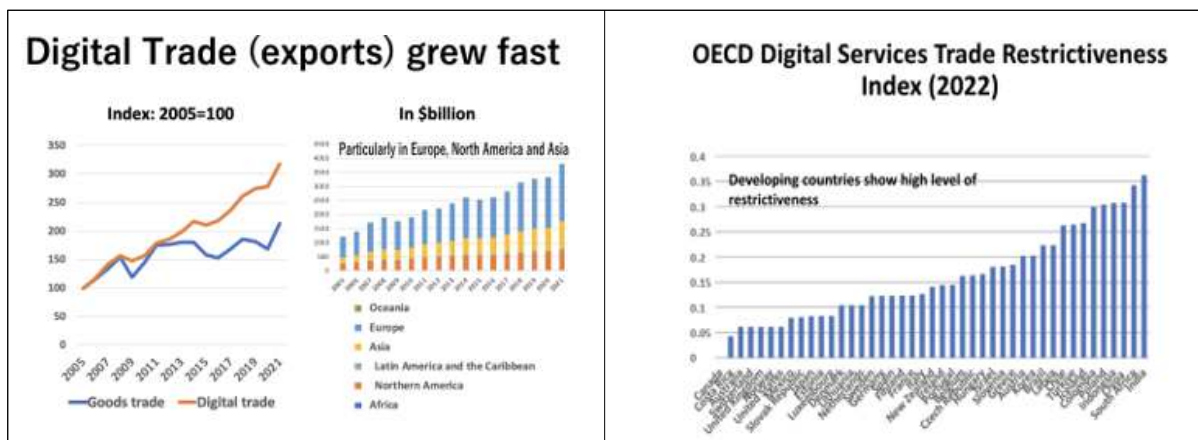
-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주요 도전과제로는 △지정학적 갈등, △규제 복잡성 및 차이, △인프라 수준 차이, △경제 수준 차이 등을 언급
- 주요 기회 요인으로는 △에너지 안보 증대, △탄소 중립 달성, △ 자원 분배 최적화, △ 지역경제 통합 등의 요소를 언급

2) NAEAF 2일차

□ [세션1] 무역과 디지털 경제

- (Shujiro Urata)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다자간 및 지역간 규칙 제정: 일본과 중진국의 역할에 대한 발표
- 2005년 이후의 디지털 무역은 약 세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는 같은 시기 두 배 성장한 상품무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아래 그림 참고)

그림 7. 디지털 무역 규모와 규제



- 미국은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는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법의 부재함을 지적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보안 리스크, 소프트웨어 유출 가능성, 중요한 기술 정보의 도용 우려, 데이터 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권 행사 불가, 기업 기밀 정보가 정부 기관에서 민간 부문으로 유출될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
- 현재 디지털 무역을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로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관련, DFFT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 CPTPP관련 영국과 중국의 가입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중국은 보다 투명한 디지털 경제 규칙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
- (Keith maskus)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안보 관계의 부상(Emerging Trade and Security Relations in Asia-Pacific) 에 대하여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을 주요 부문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음을 설명
- 특히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우려하여 경제 회복력을 위한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중 첨단기술 부문의 경쟁은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 군사적 강압,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관심사로 언급
- 미국은 국가주의적 경제 어젠다를 채택하여 제조업을 촉진하고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자국의 녹색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규제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함.
- 이러한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존의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과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서 주요국들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CPTPP, RCEP, IPEF와 같은 무역 및 파트너십 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
- CPTPP와 RCEP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이지만 IPEF는 협의적 해결책, 공급망 복원력, 청정 에너지 및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

- 반면, 디지털 무역과 관련, CPTPP는 광범위한 디지털 무역 규약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RCEP는 덜 표준화 되어 있음을 지적
-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은 구속력 있는 규칙 없이 모범 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경제안보 시기 지역 협력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주형환)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무역 이슈에 대하여 발표
 -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무역의 급격한 성장은 '승자독식'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위험을 발생시키며,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급속한 디지털화(Mass Digitalization)를 동시에 수반한다고 강조
 - 회복 탄력성 및 지속 가능성 전환(Resilience & Sustainability Shift)으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양화, 지역화 또는 현지화하는 추세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 부활은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101개 이상의 국가가 전략산업의 자립 달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첨단기술 공급망과 핵심 공급망에서 경제·안보 이슈가 얹혀 있어 다자주의 축소와 미·중 경쟁에 따른 동맹 확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기구(CBAM)와 IPEF 디지털 무역 협정의 균형적 필요성 등을 지적

□ [세션2] 북한문제와 관련한 특별 패널 토론

- (Glyn Ford) 북한의 외교 정책은 강점보다는 약점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뢰 관계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다시 대화를 통해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

- 일례로 2021년에 남한의 국방 예산이 10% 증가했는데, 이는 그 해의 북한의 총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주장
- 낮은 협력 단계으로는 대북한 전력 사업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언급
- (Stephen Noerper)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최근 크게 향상되어 비확산 체제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
- 6자회담과 같은 단발성 협상이 진영논리를 키웠다고 비판했고, 그 대신 농업이나 기후변화 등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주제별 접근을 제안

□ [세션3] 스마트 시티

- (Tatsuya Fujimoto)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하와이 내 노후 콘도미니엄 관리 서비스 개선 및 비용 절감화 추진 현황 발표
- (Bart Beavers)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하와이 노숙자 지원 복지 서비스 향상 프로젝트 소개

□ [세션4] AI의 미래

- (Bhiksha Ramakrishnan) AI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적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사회에 파급효과에 대한 발표
- (Rita Singh) AI를 활용, 범죄자 음성기록을 활용한 신상정보 추적 사례

공유

- 두 연사는 AI활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부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용성이 없으며, 국제사회가 AI 활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조

2. ELP 프로그램 (8/3 ~ 8/14)

□ [8월 3일] 전 유럽의회 의원 Glyn Ford와 북한 관련 면담 및 Neolani Kalipi, Kalipi Group 대표와의 정책수립 관련 세미나 참석 (하와이 대학 마노아 캠퍼스)

- (Glyn Ford) 본인이 은퇴 후 세운 단체 Track2Asia의 활동 내용과 북한 문제 관련 유럽의회의 대화 정책 동향 공유
- (Neolani Kalipi)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강연

□ [8월 4일] AI기술과 정책 및 디지털 경제 세미나 참석 (하와이 대학 마노아 캠퍼스)

- AI 기술과 정책관련 Bhiksha Ramakrishnan 및 Rita Singh 카네기 멜론 교수 발표
- (Bhiksha Bamakrishnan) AI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와, AI를 통한 사회과학 연구를 실시 할 때 기존 전통적인 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토론
- (Rita Singh) AI의 잠재력과 윤리 문제, 교육의 발전 및 적용 방향에 대한 토론
- 디지털 경제 세미나 참석
- (Ian Kitajima) 하와이 및 한국의 디지털 경제 적용 사례(스마트 팜,

태양광 발전 그리드) 등 내용 공유

- (Kamuela Enos) 하와이 전통 경제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 방안과 개발 모델의 지적재산권화 추진 목표 공유
- (Bart Beavers)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하와이 노숙자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성과 공유

□ [8월 5일] 비숍 박물관 견학

□ [8월 7일] American Savings Bank(ASB) 방문 및 스마트 시티 세미나 참석

- American Savings Bank(ASB) 방문 및 Beth Whitehaed 부사장 면담
 - 도시재생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ASB의 활동 공유
- 스마트 시티 세미나(하와이 대학 마노아 캠퍼스)
 - (이상엽 하와이대 교수) 첨단 산업의 집적 효과와 분산 효과의 동학에 대해 한국 사례를 들어 발표
 - (Stanley Chang 하와이 상원의원) 하와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콤팩트 시티 구상 및 입법 현황에 대한 발표

□ [8월 9일] 하와이 재생관광 현장견학 (Hanauma Bay 주립공원, Diamond State 주립공원)

- 방문자 폭증 방지를 위한 사전예약시스템 및 방문자 교육 시스템 도입 현황 내용 공유

□ [8월 10일] AES 하와이의 NA Pua Makani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현장 방문 및 에너지 분야 세미나 참석

- AES 하와이 NA Pua Makani 풍력발전단지 운영 현황 및 커뮤니티 연계 노력 소개
 - 풍력단지 건설 단계에서 주민 설득 과정과, 운영 단계에서 부지 개방,

환경보호 및 정화 활동 등 커뮤니티와의 협력 노력 공유

- 에너지 세미나 (하와이대학 마노아 캠퍼스)

○ (Yoh Kawanami) 하와이 내 태양광 발전 공급 전략과 성과 발표

○ (Nori Tarui) 태양광 발전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 발표

□ [8월 11일 및 8월 12일]

- ELP 각 그룹별 하와이 경제를 위한 정책 제언 준비 및 발표

- 끝 -